



III-2 조선 시대의 문학 [1] 속미인곡

모의 평가 2회 정답 및 해설



정답 및 해설

1 ② 2 ③ 3 ③ 4 ⑤ 5 ③

1

【정답 해설】 화자는 물가로 가면 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동한 것이다. ‘산’에서 ‘물가’로 이동한다고 하여 화자의 심리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.

【오답 피하기】

- ① 천상에서 입을 모시고 있었으나, 화자가 그곳에서 떠나 지상으로 왔기 때문에 입과 이별한 것이다.
- ③ ‘낮’에서 ‘밤’으로 시간이 이동하면서 입의 부재에 따른 외로움과 입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있다.
- ④ 화자는 입을 꿈속에서라도 만나 회포를 풀고자 한다. 꿈에서 입을 만나자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입을 향한 정 때문에 목이 메이는 모습으로 볼 때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.
- ⑤ 죽어서라도 입을 만나려는 화자의 태도에서 입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알 수 있다.

2

【정답 해설】 이 글은 ‘각시(중심 화자)’와 ‘네(보조 화자)’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. ‘네’는 ‘각시’에게 질문하여 대화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, ‘각시’의 상황을 위로하고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닐 것을 권하고 있다. ‘각시’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.

【오답 피하기】

- ① 이 글은 ‘각시’의 푸념과 입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.
- ② ‘각시’는 입에게 버림 받은 상황을 ‘네’에게 하소연하고 있다.
- ④ 3번째 행에서 ‘각시’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이끌어 내고 있다.
- ⑤ ‘글란 각 마오’, ‘이야 니와 구 비나 되쇼셔’에

서 ‘각시’를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.

3

【정답 해설】 화자는 입이 있는 곳을 보고자 산에 올랐으나 ㉠과 ㉡ 때문에 그곳을 볼 수가 없다. 또한 물가로 가서 혹시나 입에게 소식이 오는지를 알고자 하나 ㉢과 ㉣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. 이처럼 ㉠, ㉡, ㉢, ㉣은 화자와 입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. 한편 ㉤ ‘배’는 입과 화자를 매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.

4

【정답 해설】 반대파의 모함 때문에 유배를 온 상황에서 정치적 재기를 다졌다는 것은 곧 중앙 정계로의 복귀를 꿈꾸었다는 것이다.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정철은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, 임금을 향한 충심이 변함없음을 토로하고 싶었을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.

5

【정답 해설】 이 글에서는 ‘낙월’, ‘구 비’ 등의 자연물을 통해 입의 곁에 있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. 반면 |보기|에서는 ‘천운대’, ‘완락재’ 등의 인공물에서 즐기는 풍류를 드러내고 있다.

【오답 피하기】

- ① 이 글과 |보기|는 모두 4음보의 음보율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.
- ② 가사의 ‘낙구(마지막 구절)’와 시조의 종장은 형식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.
- ④ 이 글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고 있는 반면 |보기|는 ‘천운대’, ‘완락재’, ‘소쇄’, ‘만권 생애’, ‘낙사’, ‘무궁’, ‘왕래 풍류’ 등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다.
- ⑤ 이 글에는 입의 부재에 따른 화자의 슬픔과 외로움이 드러나고, 입과의 재회가 불투명하다는 비극적 인식이 깔려 있는 반면, |보기|에는 ‘낙사 무궁, 왕래 풍류’ 등에서 현실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.